

FOCUS

- 골재채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시행 -

건설교통부는 작년 12월 30일 개정된 골재채취법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었다고 밝혔다.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공포에 따라 그간 환경규제의 강화와 민원을 의식한 허가권자의 허가기피로 골재의 공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골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조치로 법개정시 도입한 골재의 집중개발을 위한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과 해양환경에 영향을 덜 미치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 등 골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에 있어 시·도지사는 골재수급계획의 변경이나 대체예정지의 지정 그리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골재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하천구역에 대하여 수시로 골재채취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골재채취의 허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골

재의 부존량조사결과를 첨부하도록 하였다.

□ 골재를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양질의 골재가 부존되어 있는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은 직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단지의 규모는 하천구역에서는 10만㎡이상 25만㎡미만, 공유수면의 경우에는 2개광구 이상 5개광구미만으로 하고,

- 단지의 지정기간은 골재의 부존량·채취계획 등을 고려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이외에도 골재채취법에서 골재협회가 공제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공제사업의 범위·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건설교통부 2004년도 예산요구(안) 확정 -

건설교통부는 지난 5월 31일, 2004년도 예산규모를 금년예산 15조 9,457억원 보다 20.7%(3조3,036억원) 증가한 19조 2,493억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기획예산처에 요구하였다. 이는 각 사업국이 당초 요구한 금액(24.4조원)을 5.2조원 자체 감액조정한 것으

로, 내년에 총 224개사업(계속사업:172개, 18조2,923억원, 신규사업 : 52개, 8,070억원)이 추진될 계획이다.

(단위: 억원)

구 분	'03예산(a)		'04예산요구(안)		증감규모	
	사업수	금액(a)	사업수	금액(b)	금액(b-a)	%(b/a)
○ 전체	190개	159,457	224개	192,493	33,036	20.7
· 계속사업	162개	157,082	172개	183,423	26,341	16.8
· 신규사업	28개	2,375	52개	9,070	6,695	281.9

건설교통부는 금년에 그간의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의 입장에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정부 최초로 학계·연구원 및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20명으로「예산자문위원회(위원장: 신부용 녹색교통운동대표)」를 구성하여, 국민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고, 요구규모도 금년 예산의 20% 수준(작년은 47%증액한 22.3조원 요구)으로 설정하여 예산심사단계에서의 인적·물적 낭비소지를 최소화하였다.

내년도 예산요구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난방지 등 국민생활안전 확보(20,994→27,554억원, 31.2%증), 서민 주거복지강화 및 지역균형발전(13,836→18,101억원, 30.8%증), 대중교통 육성 등 도시교통난 완화(15,743→24,453억원, 55.3%증), R&D·정보화 등 건설교통 발전기반 확충(1,346→2,709억원, 101.3%증)으로 중점 지원할 계획이며, 지속지원부문으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철도·공항 등 SOC 인프라 시설 구축(96,944→105,748억원, 9.1%증), 물 부족에 대비한 다목적댐 등 수자원 투자(5,581→5,812억원, 4.1%증)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 폐콘크리트 재활용 고성능 콘크리트화 -

지난 6월 10일 한양대 신성우교수는 「재생골재를 활용한 고성능콘크리트의 개발 연구보고서」를 통해 재생골재를 천연골재와 적절히 혼용할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24~27MPa보다 2배 이상의 강도를 갖는 고강도의 고성능 콘크리트를 충분히 제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생골재가 구조용이나 콘크리트 2차제품에 사용실적이 저조한 것은 압축강도의 저하와 시공성에 따른 문제, 건설업계 전반의 인식부족 등이 원인으로 꼽혀 왔다.

신교수는 이와 관련, 적절한 재생골재 대체 비율은 20~50% 범위이며 특히 콘크리트 제조를 위한 사전준비로 충분한 살수와 함께 고성능 감수제를 적절히 사용하면 고유동의 작업성과 함께 고강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재 아스팔트 포장의 보조재나 지하구조물 뒤채움재 등 제한적인 부분에 쓰이는 재생골재를 건설구조물의 각종 구조부재로 적극 활용, 시설물의 성능향상과 함께 경제성, 자원보존과 환경보호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신교수는 전망했다.

신교수는 재생골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재생골재를 활용한 구조물을 건설할 경우 세제감면혜택을 부여하거나 공공건설사업에 대해 일정비율 재활용의무를 규정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교수는 “고성능의 재료개발과 함께 고부가가치 고성능재료의 개발이 시급하며 환경보호와 부존자원보존 측면에서 재생골재 등을 활용한 고성능콘크리트와 같은 재료개발에도

국가차원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재생골재를 중심으로 한 건설폐기물의 종합적인 관리와 활용방안을 교육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페콘크리트의 골재를 재생하여 성토재 및 복토재로 활용하는 업체가 일부 있으나 이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상용화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다.

- 건설연, 5월 CBSI 82.7 -

지난 6월 건설산업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5월 건설기업경기 실사지수(Construction Business Survey Index: CBSI)는 82.7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에 비해 8.6p 상승했으나 여전히 기준지수(10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건설경기와 관련된 각종 통계에 따르면 조달청 신규발주, 통계청 수주실적 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체감경기는 좀처럼 좋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기업들의 체감경기가 계속 저조한 것은 일반경기를 나타내는 각종 지표에서 뚜렷한 경기하락 양상이 나타나면서 향후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규모별로 살펴보면 여전히 체감경기가 전반적으로 나쁜 상태이나 대형업체와 서울업체는 전월에 비해 지수가 10.0p 이상 상승했다. 규모별로는 대형업체(93.8)가 전월보다 17.3p나 체감경기가 상승했으며 중견업체(81.0)와 중소기업(71.8)도 전월에 비해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업체(89.9)가 전월에 비해 11.9%p 상승했으나 지방업체(71.4)의 경기종합지수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6월 경기전망은 95.8로 지난 5월에 비

해 7.1p 상승하였다. 이는 향후(다음달) 경기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자가 전월에 비해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규모별로는 대형업체(112.5), 지역별로는 서울업체(101.5)가 6월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공사물량 BSI는 88.9를 기록해 5월에도 100.0에 미치지 못했다. 공사물량 감소는 올해들어 5개월째 지속되고 있으나 감소세는 둔화됐다. 한편 6월에 대한 전망지수는 103.7을 기록해 공사물량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

공종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감소세가 둔화했으나 여전히 공사물량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목부문의 경우 물량 BSI가 83.6으로 기준지수(100.0)에 못 미치고 있으나 대형업체는 106.3을 기록해 5개월만에 물량이 증가했다. 주택부문(88.2)은 작년 11월 이후 물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재건축의 영향으로 금년 1월을 기점으로 감소세는 점점 둔화되고 있으며 비주택부문(76.4) 역시 공사물량이 부진한 상태이나 전월에 비해 감소세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공사물량은 규모별·지역별로 업체간에 차별화가 두드러지고 있으며, 규모별로는 대형업체의 공사물량(106.3)이 5개월만에 증가세로 반전됐으나 중견업체(88.1)와 중소기업(69.4)는 감소세가 둔화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감소상태를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업체(99.6)의 공사물량이 전월과 비슷했으나 지방업체(76.1)의 경우는 여전히 기준선(100.0)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6월에 대한 물량 전망지수는 103.7을 기록해 차츰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 토목부문(105.5)은 대형업체(150.0)의 공사물량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부문(96.2)은 중견업체(106.9)의 물량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대금수급과 자금조달 지수는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대금지수(91.3)는 3개월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자금조달(97.9) 또한 100 이하로 하락했다. 자금관련 지수는 최근 2년간 원활했으나 올해 들어 SK 사태, 카드채 문제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혼란이 건설업체의 자금부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력과 자재조달의 애로사항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수급 측면에서는 인력수급과 자재수급 지수가 각각 84.9, 77.7을 기록했다. 비용 측면에서는 인건비 지수는 63.3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11월을 기점으로 급속하게 하락하기 시작한 자재비 지수는 43.3으로 조사돼 4개월째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체의 인력 및 자재조달 어려움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6월 전망지수를 보면 인력수급이 74.2, 자재수급이 71.4를 기록했다. 인건비(70.3)와 자재비(53.5) 또한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들이 많았다.

- LG경제연구원, 하반기 건설투자 전망발표 -

LG경제연구원은 지난 6월 26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경제가 내수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SARS(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여파 등으로 수출증가율도 둔화되면서 연간 성장률이 지난해의 절반수준인 3.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LG연구원은 경기하강 속도가 빨라지면서 상반기 중 성장률이 급락하고 국민총소득(GNI)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악화된 체감경기를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하반기에도 내수부문이 회복세로 반전될 만한 요인들이 보이지 않고 신용카드사 문제, 장·단기금리 역전현상 등 불안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으며 복핵문제, 노사분규 등 경제외적인 불안요인도 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하반기 세계경제가 미약하나마 회복세로 돌아서면서 우리경제도 성장률이 상반기에 비해 0.5%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상승폭이 미미한 데다 성장률이 잠재성장률(5%)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고용사정도 악화될 것으로 보여 경제주체들의 체감경기는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위축과 수출부진, 경쟁심화에 따른 가격하락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에도 기업들의 매출증가세 둔화가 계속되면서 기업들의 투자여건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다.

특히 노사관계는 경제자유구역법 논란과 주5일근무제, 비정규직 균등대우, 산별교섭체제 도입, 노조의 경영참여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국가경제 전반에 상당한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원은 최근 주식시장 등 일부 경제지표의 호전조짐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기대하기는 힘들며 향후 1~2분기 동안 경기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는 경기의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지나친 침체를 막기 위한 경기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투자의 경우 4조원대의 추경예산 집행에 따른 SOC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 부진으로 성장률이 상반기 7.5%에서 하반기에는 4.7%로 둔화돼 연간으로는 5.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원은 건설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상

반기 1.0%포인트에서 하반기에는 0.7%포인트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도 낮은 가동률과 과잉설비능력, 수요부진 등으로 3%대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상반기 우리경제를 이끌던 수출은 미약한 세계경기 회복세와 원화 강세, 지난해 수출호조에 따른 기술적 반락효과 등으로 작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3%대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연구원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가 중요하며 정부는 단기적인 성과에 대한 집착이나 이익집단의 요구에 좌우되지 않고 일관된 원칙아래 정책을 집행, 경제주체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하반기 경기전망에 대하여 한국은행을 비롯한 각 연구기관의 발표와도 유사하고, 이에 따른 하반기 경제전망에 대한 연구기관의 입장이 비판적이라는게 대부분이다.

- 환경분야 재정투자 확대 -

환경부담금의 부과율을 현실화해 환경분야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동시에 사후평가 등을 통해 투자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기획예산처와 환경부가 24일 서울 불광동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개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을 위한 환경분야 정책토론회'에서 학계 전문가들은 환경관련 부담금을 현실화해 재정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환경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강만옥 연구위원과 한국개발원 김동석 연구위원은 '맑은 물 공급 종합대책' 등 일련의 수질 개선 사업에 16조8천억원이 투자됐지만 4대

강 상수원 수질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고 수도권 대기상태도 선진국 주요도시에 비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과다한 환경시설이 설치되거나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집행이 부진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 위원은 특히 경제성장과 인구증가, 도시화 등으로 환경예산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며 각종 환경관련 부담금의 효율을 현실화해 재원을 마련, 환경부문 재정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경분야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 체계를 확립하고 환경자원과 관련한 공공요금도 수익자 부담원칙을 충실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앞으로 환경분야 재정투자는 그동안 부진했던 대기 및 자연환경, 자원보전, 유해화학물질 분야를 중심으로 확대해야 하며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규제에 대응한 국내 기반구축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이날 제기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일본의 생콘크리트 공장 감소추세 -

최근 일본의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전국의 생콘 회사·공장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지난 2003년 3월말 현재 3,040사(社) 4,449공장인 것이 전국 생콘연합회(전생연)의 조사에 의해 나타났다. 예년에 비교 77사(社) 93공장 감소하고 있다. 일본의 이와같은 생산시설의 감소추세는 건설경기 둔화에 따른 콘크리트의 수요가 대폭적으로 감소하였고 이에 따른 공장의 통폐합이 진행

되고 있어 당분간은 이와 같은 생산시설의 감소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일본 2002년도의 수입 시멘트, 77만 t 감소 -

2002년도의 일본의 시멘트 수입 양은 77만 4천 t으로 예년에 비교하여 27.3%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98년도 이래 3년 연속으로 늘어난 시멘트 수입은 2000년도 129만 t이 있었으나 '01년도부터 2년 동안 지속적인 감소로 100만 t을 육박하고 있다. 이는 일본내의 시멘트 수요감소와 시장경제의 침체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03년도도 내수 감소가 이어지는데다가, 한국의 수요가 견고한 것도 있고, 많아야 지난 2002년도 수준으로 보이고 있다.

- 제 57회 시멘트 기술 대회를 개최 -

일본 시멘트 협회는 지난 5월 28~30일, 도

쿄도 치요다구 平河町の 전 같이 연 빌딩에서 「제 57회 시멘트 기술 대회」을 개최, 화학, 토목, 건축, 시멘트 제조의 각 분야에서 19셋션 170건의 발표가 행해졌다. 기술 대회에는 3일간으로 참가인원은 합계 약 540명이 참가. 대회 2일째 시상식 인사에 선 小田切 康幸 회장은, 「시멘트산업은 폐기물·부산물의 유효이용으로 순환형 사회 구축의 실현에 매달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기대와는 반대로 수요가 계속 감소한 경우에는, 그 역할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지적. 「그렇기 때문에, 생 콘 업계가 함께 노력하여 포-라스콘크리-토를 응용한 배수성 포장, 시공성이 뛰어난 손쉬운 RCCP, 방호 목적 등, 새로운 수요의 개발에 매달리고 있다. 또 토양 오염의 문제에도 키론을 활용한 안전한 처리 등, 시멘트산업이 이룩하여야 할 역할은 아직 많이 산적해 있다」라고 말하고, 그것만으로 기술이 이루는 역할은 크다고 강조했다.